

[TV]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비 "성공할 때까지 서구 시장 도전"

월드 투어, 14일 시드니 에서는 아레나 공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미국에서 영어 음반을 발표하고 정식 데뷔를 한다면 '아시아의 저스틴 팀베레이크'란 닉네임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요."

14일 오후 7시(이하 현지시간) 시드니 에서는 아레나에서 월드 투어를 이어가는 가수 호주 시드니 더블베이의 스타퍼드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폴 비비(Paul Bibby) 기사는 "아시아의 팀베레이크란 닉네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비는

"개인적으로 팀베레이크의 팬"이라며 "그 인용은 지난해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의 선정 과정 중 하나인 소거였다. 아마도 그 당시 나에 대해 쉽게 설명할 단어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이 같은 질문은 ABC 아시아 퍼시픽 TV와의 개별 인터뷰에서도 이어졌다. 비는 "왜 아시아 스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느냐"는 로스 브레이(Ross Bray) 기자의 질문에 "우선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나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운을 폈다.



도 있었지만 이미 인종과 피부색이 문제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셋째,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아무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조용필, 울여름美 4개 도시 공연

하반기엔 19집 발매 계획

내년 데뷔 40주년을 맞는 가수 조용필(57)이 올해 외유(外遊)를 계획하고 있다. 조용필의 음반제작사인 YPC프로덕션은

12일 "10월27일 호주 시드니의 한 야외공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다"며 "앞서 여름계 미국 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미국 4개 도시를 도는 투어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공연은 현지 교민들의 요청으

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논의 중인 상태"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 개최 여부와 시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8년 데뷔한 조용필은 2003년 9월 발한 정규 18집에 이어 올해 하반기 19집도 발매할 예정이다. YPC 측은 "요즘 조용필 씨는 새 음반에 수록할 곡들을 구상하며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Living Pointe Presents (오후 4시) advertisemen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about a performance.

Advertisement for a 25th anniversary promotion on domestic appliances, including a washing machine and dryer.

케이블·위성TV 13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광역시방송 (PBC Gwangju Metropolitan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TBN 교통방송 (TBN Traffic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BBS 불교방송 (BBS Buddhist Broadcasting) logo and contact information.